

## 우리 주님의 승리(1)

신학박사 조 덕운

[마태복음 4:1-2; 10-11] 1.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2.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주리시니라. 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1.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 1. 스스로 종이 되신 주님

성경에는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과 손실을 경험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패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그러한 손실과 패배를 당하지 않도록 교훈을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승리하심으로써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올바른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의 승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행진을 위한 올바른 자리에 그분을 두게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얻으신 그분의 승리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완수하게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했으며, 우리가 그의 승리의 모범을 본받고 따르도록 남겨진 훌륭한 본인 것입니다.

불신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주님의 승리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데 사용하는 논리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과는 달리 그런 시험에서 매우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이나 나처럼 동일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배고픔, 피곤함, 신체적 힘의 제한성 등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제한성과 난관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0 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유혹은 그분의 신체적 필요성에 매우 절실한 유혹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분은 나중에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적에서 보이셨듯이 [요한 2] 돌을 빵으로 만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사랑, 증오, 분노, 슬픔, 기쁨, 질투, 탐욕 및 정욕 등, 사람들이 차이는 있지만 모두 경험하는 인간의 본원적 특성을 모두 보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중 몇가지 감정을 나타내었는데, 한 예가 베다니의 나사로의 죽음에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몇번이나 분노를 표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청직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탐욕이나, 성적 정욕을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의 통제하에 자신을 돛으로써 그런 감정들을 억압하셨고 그것들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7 절에서 종, 영어로 bond servant 라 함은 주인으로부터 떠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도 주인을 사랑하므로 스스로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을 말합니다 [레위기 15:12-17]. 사도 바울은 디도서 1 장 1 절과 여러

구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bond servant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중으로 자신을 만들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처럼 100 퍼센트 인간이었으므로 매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놓아 두고, 오직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와 통제아래 자신을 두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였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제한성과 괴롭히는 인간성을 극복하며, 그  
인간성 위에 신의 성품이 승리하도록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안에 이 두가지 성품이 동시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매일 싸움을 싸우셔야 했던 것입니다.

## 2. 네 안의 영을 먹이라

이제 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패배한 천사장인 사탄이 그분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사탄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겸손히 하시어 시험 받으리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40 일 금식 후에 돌 덩어리를 빵으로 만들라고  
시험 받았습니다. 그분의 몸은 오랜 금식으로 인하여 극도로 허기지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빵과 물로 만들어 자신의 신체적 필요성을 충족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제어하시고 다음 성경 구절을 말씀하심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험은 그분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신체적인 필요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요구에 응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빵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주신 영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 시험에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으로 주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육신의 일들이 아니고 영의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안에 거하는 속 사람을 먹고 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까지 성장하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심에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매일 맞추며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 3.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의 2 단계로서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밑으로 추락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을 손으로 받쳐서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시험했습니다. [마태 4: 5-6]. 이 시험을 타당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사탄은 시편 91 장 11-12 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91:11-12]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험에 대한 주님의 대응은 사탄의 의도를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인지 시험하기 위하여 자신을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 장 1-7 절에서 알 수 있듯이, 광야 기간 중에 맛사와 메리바에서 두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로서, 모세가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그 백성들은 그 땅에 물이 없음에 대하여 격렬하게 모세에게 불평하고 항의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모세의 경고를 사탄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16] 너희가 맛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 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이 땅에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는 그 때에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대 위에 놓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하나님을 여러분 분노하게 하였던 크게 잘못된 태도, 불신의 영을 갖도록 자신을 시험한 사탄을 꾸지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여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힘들 때에, 성령님의 지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대신에, 쉽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중요한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써 모든 크리스찬에게 훌륭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 **4. 사탄아 물러가라**

마지막 시험으로서 사탄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 정상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롯 유다, 매 세대마다 크리스찬들과 불신자들을 비롯하여 오늘날 21 세기에 여러분과 나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의 첫째 방법은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섬기면 갖게 된다고 믿게 하는 거짓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변함이 없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세기를 걸쳐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 했으며, 사람들의 딸들을 속여서 하늘에서 온 사탄의 수종들인 악한 천사들과 결혼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사탄은 님로드와 그의 추종자들을 거짓으로 부추겨서 하나님에게 대항하여 바벨탑을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르는 것보다 사탄의 목소리를 따르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수 많은 불순종하는, 불평하기 좋아하는, 탐욕적인 사람들에게 속삭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면 훌륭한 위치나 부를 얻게 해준다고 하는 거짓 약속을 믿고 따르도록 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그에게 팔고 그 악의 팀, 어두움의 팀에 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세기에 걸쳐서 가장 큰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약속하는 것은 절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실현해 줄만한 권능이 사탄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사탄의 권세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영광을 훨씬 초월하는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1 세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이 지구상이나 모든 우주의 천체들의 영광을 초월하는 영광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왕은 역대하 29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 했습니다:

*[역대상 29:11]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다윗 왕은 자신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국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왕국과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어떻게 그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짓입니다. 따라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사기꾼의 시험에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때에 사탄에게 한방 날린 펀치는 1500 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한 명령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13]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주 예수님이 사탄에게 대해 취하신 자세, 바로 모든 크리스찬이 사탄의 시험을 접할 때에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에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거짓말쟁이임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너의 거짓 약속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 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굳게 정해져 있다.” 여러분이 이런 굳건하고, 확실한, 변할 수 없는 태도를 사탄에게 보여 줄 때에 그는 여러분을 떠나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간에 사탄의 권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그의 신앙의 전환 이전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하신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17-18]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 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주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사탄의 권능 아래에서 구출하여 하나님께로 데려 오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근본 목적입니다. 복음은 남녀 노소 모두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낚아 채서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데려오므로써, 그들이 더 이상 원수 사탄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빛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빛 안에 들어온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것들을 탐닉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양식과 귀한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현명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